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 맑고 향기롭게

2018 . 10

맑음은 개인의 청정음,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8 / 10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지금 출가를 꿈꾸는 그대에게
길상사 시간여행	17	길상사 가람에 대해서 - ①
아름다운 마무리	22	10월 결연 대상자 - 김막순(가명)
나눔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24	마더 테레사
공감으로 소통하실래요	28	내 말 좀 들어볼래요?
세계 일주 시작이 반	31	Happy=Hygge
옛날 사람처럼 먹어라	35	뒷마당 가득 국화 잔치
모단 에세이	39	방서한
따뜻한 이야기	40	이것이 무슨 바구니인가?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1	중앙모임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49	



사진·강미선 「설법 무르익다」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시다.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8년 10월 1일 발행 / 통권 284호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인 및 편집인 이형준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엄현경, 주소영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유경은

대구모임 : (053)753-888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mailto: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mailto:kilsangsa@hanmail.net)

# 지금 출가를 꿈꾸는 그대에게

글·법 정(法 頂)

저는 요사이 무척 바빴습니다. 제 얼굴을 보면 아시겠지만 추승구족, 가을 중은 다리가 아홉이라는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산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월동 준비를 하느라 분주하게 뛰어다녀야 합니다. 더구나 그간 비가 많이 내려 도랑 팬 곳, 오두막으로 올라오는 오솔길 무너진 곳 등을 혼자서 보수하느라 많이 바빴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 열 시까지 나오려면 아침부터 바쁘시죠? 하지만 사람은 일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일거리가 있어야 그것을 통해 전체 삶에 탄력이 붙습니다. 일거리가 없으면 삶 자체가 시들고 활기가 없어집니다. 꼭 이런 법회가 아니라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일이라면 그 일을 통해 자기 삶에 새로운 에너지와 탄력과 리듬이 붙게 됩니다.

오늘 저는 출가와 출가 정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불자들이 스님들에게 종종 묻습니다. 왜 스님이 되었습니까? 또는 기독교도들이 묻습니다. 왜 신부님이, 목사님이 되었습니까? 다들 이유를 알고 싶어 하지만, 복잡한 사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될 때가 되어 된 것입니다. 열매가 떨어질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나무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출가는 집을 나온다는 뜻입니다.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집착과 타성의 집에서 훨훨 떨치고 나오는 것을 출가라

고 합니다. 출가와 출가는 다릅니다. 출가는 자기 의지와 선택에 따라서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삶의 궤도를 수정하기 위해 나오는 것이고, 가출은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아 마지못해 집을 떠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출과 출가는 자기 삶의 궤도를 수정하려는 행위입니다. 삶이란 이런 게 아닌데 하고 회의를 거듭하다가 떨치고 나오는 것입니다.

가끔 집 나가고 싶은 충동 같은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출가 정신입니다. 일상이 따분하고 무의미하니까 무엇인가 새롭고 나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들 가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생각까지는 좋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소용돌이나 늪에 갇혀 허우적거릴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헤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

니다. 삶의 환경이 여러 가지로 다르므로 한결같은 수는 없겠지만,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없어서 보다 자기다운, 보다 꽃다운, 보다 인간다운 삶은 없을까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출가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왜 출가하는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한 생각이 불쑥 일어나서 집을 떠나고 싶어지면 누가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급해집니다. 꼭 불교적으로 출가하는 승려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댕에서 벗어나야겠다고 마음을 일으키면 한시가 바빠집니다.

저는 생각할수록 불가사의하고 도저히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도 중 모집한다는 광고 보고 출가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신학대학이 있어서 신부나 목사 될 사람을 공고하고 모집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스님을 모집해서 양성하는 곳은 없습니다. 다 제 발로 걸어 들어옵니다.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어디서 부르는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불쑥 마음이 일어나 집을 나와 산으로 들어가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본인 외에는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때가 되어 익은 열매가 떨어지듯, 어느 날 한 생각이 일어나 자연스럽게 출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생을 따지면 여러 사연이 있겠지만 모두가 그렇습니다. 누가 부르는 것도 아니고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저마다 삶을 훌훌 털고 떠나옵니다. 그것이 출가입니다.

내면에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는 남들은 갑작스런 떠남을 보고 놀라겠지만, 본인으로서는 무의미한 일상과 타성의 늪에서 뛰쳐나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것입니다.

모든 수도자가 처음 집을 나올 때 갖는 그 절실한 생각, 그 물리칠 수 없는 의지를 출가 정신 혹은 구도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신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 집을 나올 때의 그 때문지 않은 절실한 마음을 전 생애에 걸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풀어지면 출가 정신 자체가 풀어집니다. 늘 깨어 있으라는 것은 그 뜻입니다. 늘 깨어 있으라는 것은 처음 출가할 때의 마음을 잊지 말고 그것을 언제나 되새기라는 가르침입니다.

서산 대사의 <선가귀감>에 보면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었는가. 편함과 한가함을 구해서가 아니고,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으려는 것도 아니며, 명예와 재물을 구해서도 아니다. 생과 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며,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고, 끝없는 중생을 건지려는 것이다.”

이것이 출가 정신입니다. 이 각오, 이 정신을 늘 지녀야 합니다. 출가란 모든 집착과 얽힘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수행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 누구에게나 이 출가 정신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다면 삶을 변화시켜야 하고,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혼하고 집을 나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릇된 생활 습관과 잘못된 업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업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초기 경전인 <숫타니파타>의 ‘출가편’에 부처님 자신이 출가에 대해 고백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눈이 있는 사람은 왜 출가를 했는지, 그가 무엇을 생각하기 때문에 출가를 선택했는지, 그의 출가에 대해 나는 이야기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눈이 있는 사람’은 깨

달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사는 삶은 비좁고 번거로우며 티끌이 쌓인다. 그러나 출가는 널찍한 들판이며 번거로움이 없다고 생각한 까닭이다.”

초기 경전이기에 때문에 표현이 무척 소박합니다.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비좁고 번거롭다는 것입니다. 먼지라는 것은 털어 내는 먼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뇌스런 일들을 뜻합니다. 세속적인 것은 거리낌이 많고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어디에도 거리낌이 없는 널찍한 들판에서 살기 위해서, 한마디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모든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안팎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출가했다는 것입니다. 출가했다고 해서 비좁고 번거롭지 않거나 티끌이 쌓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출가수행 생활을 함으로써 번거로움과 비좁음, 티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디에도 거리낌이 없어지게 됩니다.

“모든 욕망에는 근심이 따르는데, 출가는 편안하고 조용하다.”

집을 뛰쳐나왔다는 것은 집착과 욕망의 집으로부터 벗어 나왔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어떤 주거 공간, 어떤 지역에 있는 왕국, 그런 곳이 아니고 집착과 욕망의 집에서 떠나온 것입니다. 집에서 나온 사람은 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주택자입니다. 전셋집도 없고 사글세 집도 없습니다. 수행자는 본래 자기 집이 없습니다. 자기 집이 있거나 개인의 재산이 있다면 수행자일 수가 없습니다. 본디 그렇습니다. 집착할 집이 없고 욕심 부릴 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뇌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바다에서 소금물을 마시는 것에 비유합니다. 더 많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떤 대상에 대한 집착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가지고 그 집착을 충족시키든 결코 충분한 만족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괴로움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기원정사에 머물 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진실로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것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자 보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저기에 얽매어 그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가를!”

모든 욕망에는 근심이 따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불필요한 욕구는 고통을 가져옵니다. 자기 주변을 정리해야 합니다. 어디로 이사 갈 때만이 아니라,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너저분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때 필요해서 사들인 것들이 집안에 쌓이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집을 가나 사람이 가구와 물건에 갖눌려 웅색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가족을 이루고 살 경우에는 우리 수행승들과 다르겠지만, 그래도

살 줄 아는 집과 너저분하게 늘어놓고 사는 집은 다릅니다. 내가 갖기는 짐스럽고 남 주기는 아깝고,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늘 깨어 있는 것이 출가 정신이라면 물질의 더미에서 깨어나는 것 역시 출가입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비좁은 소유의 방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진정한 출가입니다. 출가 수행자는 소유의 자로 재였을 때 가진 것이 없을 수록 부자입니다.

언젠가는 이 몸도 버리고 가야 합니다. 내 몸도 버리고 갈 텐데, 소유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한때 누구나 갖고 싶어 합니다. 친구가 어떤 물건을 사는 것을 보면 갖고 싶어집니다. 빨리 그런 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소유의 늪에 오래 갇혀 있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살아야 제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의식이 분산되어, 자신의 삶을 자주적으로 살지 못하고 무엇인가 휘말려 쫓기듯 살게 됩니다.

쇼핑하기 위해 태어난다.란 말은 현대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해 줍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유와 장난감과 기저귀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물건을 사고 또 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사도록 현혹하고, 새로운 물건은 새로운 욕망을 부추깁니다.

“욕망에는 근심이 따르는데, 출가는 편안하고 조용하다.”

왕자 싯다르타는 집착과 욕망의 집을 떠납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가장 자유롭습니다.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잠자리 삼아, 어디에도 집착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집착할 집이 없고, 욕심 부릴 집이 없습니다. 출가란 그런 것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살림에 대한 집착, 복잡해진 관계에 대한 집착, 재산에 대한 집



착, 명예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출가란 집착의 집, 욕망의 집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행이 필요합니다. 일상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른 세상으로 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집을 떠났다가 언젠가는 영영 그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날이 올 것입니다. 도중에 마주치는 어떤 사건 사고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따라서 여행을 통해 비본질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주기적으로 털어 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몸을 바꿀 때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훌가분하게 이쪽 정류장에서 저쪽 정류장으로 지나가듯이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불리는 우리 존재만이 아니라 동물, 곤충, 새들도 늙음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원한다 한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원하는 상태

로 유지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서 그런 자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큰 괴로움과 불만족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불만족은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도 합니다. 존재의 한계를 알게 되면 진정한 추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마음에 들어 기쁘면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만일 마음에 들지 않고 불쾌하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현상에 속은 것입니다. 사실 마음은 하나뿐이며, 현상이 여러 개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깨어 있지 못하면 현상들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화롭지 못한 이유입니다.

태국 출신의 고승 아잔 차 스님은 말합니다.

“조금 내려놓으면 조금 평화로워질 것이다. 많이 내려놓으면 많이 평화로워질 것이다. 완전히 내려놓으면 완전한 평화와 자유를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세상과의 싸움은 끝날 것이다.” 크게 버리는 자만이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전부를 버리지 않고서는 전체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는가? 비본질적인 자기를 벗어 버리고 본질적인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옷들을 벗어던지고 그것에 가려져 있던 본질의 나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가를 이욕(욕망으로부터 결별함), 또는 출진(먼지의 세상으로부터 떠남)이라 부릅니다.

벵골 지방의 성인 라마크리슈나의 <카타프리트(불멸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강에서 목욕을 하기 위해 어깨에 수건을 걸치고 집을 나서려고 하자 그의 아내가 다그칩니다.

“당신은 아무 능력 없이 날마다 빈둥거리기만 하고 있군요. 내가 없으면 하루도 못 살 거예요. 이웃집 남자는 여러 명이나 되는 첩을 한 명씩 버리

고 있다는데, 당신이라면 그런 일을 할 수도 없을 거예요.”

남자는 말합니다.

“한 명씩 버리고 있다고? 그런 사람은 다 버릴 수 없어. 진정으로 버리는 사람은 한 명씩 버리지 않아.”

아내가 어처구니없어하며 남편을 비웃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말합니다.

“진정으로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야. 난 이렇게 아무 미련 없이 떠나거든.”

그렇게 그는 수건을 어깨에 걸친 채, 집도 아내도 뒤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출가의 길을 나섭니다.

진정한 출가는 알아차리는 순간, 그 자리에서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씩 버리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물건이, 새로운 인연이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갖지 못해 부자유한 사람들이 있지만, 전체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은 그 순간 자유를 누립니다.

인간의 진정한 봄은 어디서 옵니까?

묵은 과거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때 새로운 움이 틀 수 있습니다.

그럼 저 자신은 왜 출가했는가? 무슨 이유로 세속을 떠났는가? 부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물으면 저는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답게 살기 위해서, 내 식대로 살기 위해서 집을 떠났노라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세상이 무상하다거나 불교의 진리에 매혹되어서 집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듯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의 한국 불교는 중생 구제 운운할 자격조차 없습니다만, 무상한 게 어디 속세 뿐이겠습니까? 절이든 산중이든 무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출가 전에 저는 불교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의 출가는, 저의 존재의 절실한 요구였습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저를 그 길로 이

끌었을 것입니다. 자기답게 살려는 사람이 자기답게 살고 있을 때는 환희심으로 충만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고통과 번뇌가 따릅니다. 자기 몫의 생을 아무렇게나 소비해 버릴 수는 없는 까닭에 저는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20대에 출가할 무렵, 저는 우주의 번뇌를 혼자 짊어진 것처럼 며칠 밤을 뜬눈으로 지새우면서 메아리도 없는 물음을 토하곤 했습니다. 6·25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 가는 것을 보고 나니 삶과 죽음에 대한 의문이 젊은 영혼 속으로 건잡을 수 없이 밀려왔습니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식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의문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바다를 건너기만 하면 새로운 세상이 있을 것이라 믿고 밀항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돈 없는 친구들이 주머니를 털어 환송회를 열어

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극심한 존재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 나머지 생애를 스스로 반납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출가를 결심한 그때의 저의 심정은, 소설 <광장>의 주인공 이명준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남도 북도 아닌 중립국을 선택해 가다가 그 중립에서 조차 바다로 뛰어내린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주인공과는 달리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내 식의 생을 끝까지 추구하려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출가는 소극적인 도피가 아니라 적극적인 추구입니다. 누구도 어떻게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내 의지로써 내 삶을 재구성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집을 떠나오기 전 제가 가장 아쉬웠던 것은 책이었습니다. 녀석지 못한 살림에서 어렵사리 모은 소중한 책들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못내 망설여졌습니다. 그것이 저의 유일한 소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차마

다 버릴 수 없어 서너 권만 챙겨 가기로 마음먹고 이 책 저 책 뽑았다가 다시 꽂아 놓기를 꼬박 사흘 밤을 되풀이해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끊어 버리기 힘든 집착이었습니다. 책에 대한 집착이나 재물에 대한 집착이나 인간 관계에 대한 집착이나, 모두 집착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세 권의 책을 골라 짐을 꾸렸지만, 산에 들어와서 보니 그 세 권 모두 시시하고 별도 움이 되지 않는 책들이었습니다. 집착을 버리고 나서 보면 모두가 이와 같습니다.

침묵의 성자로 알려진 인도의 요가 수행자 바바 하리 다스의 글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숲 속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수행자 한 사람이 찾아와 그에게 <바가바드기타>〈신이 부르는 노래라는 뜻으로 인도 철학의 꽃〉한 권을 주고 갑니다. 수행자는 날마다 그 책을 읽기로 합니다. 그런데 어

느 날 쥐가 책을 쏟아 버린 것을 보고 수행자는 쥐를 쫓기 위해 고양이를 한 마리 기릅니다. 고양이에게 먹일 우유가 필요해지자 이번에는 젖소를 키웁니다. 이 짐승들을 혼자서 돌볼 수 없게 되자 그는 젖소를 키울 여자를 한 명 구합니다. 그렇게 숲 속에서 몇 해를 보내는 동안 수행자는 커다란 집과 아내와 두 아이와 젖소들과 고양이 무리들을 갖게 됩니다. 수행자는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는, 한 권의 책이 이토록 건잡을 수 없는 사태를 몰고 온 것을 알아차리고 한숨을 짓습니다. 집착이란 이와 같습니다. 한 가지 소유물에 대한 집착이 새로운 집착을 부르고, 한 가지 인연이 더 많은 복잡한 인연들을 몰고 오는 것이 세간법입니다. 집에서 몸만 빠져나온 것을 가리켜 출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 하나의 집착이라도 미련 없이 털고 나올 수 있어야 진정한 출가입니다. 책이든 그

림이든 연인이든 단 한 가지의 집착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것은 아직 출가가 아닙니다.

출가는 일회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결코 일회적으로 끝날 수가 없는 것이 출가입니다. 매번 일어나는 모든 집착으로부터 거듭거듭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가란 끝이 없는 탈출이며, 수행이란 일종의 장애물 경주와 같습니다. 궁극의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길 위의 사람으로 남아 있으면서 “나는 왜 출가했는가? 무엇을 위해 출가했는가?”를 끊임없이 되묻는 것이 참된 출가자의 정신입니다. 그 물음만이 출가자를 깨어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는 더 이상 출가자가 아닙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날갯짓을 멈추면 추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칼날이 무뎌지면 칼로서의 기능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칼이 칼일 수 있는 것은 그 날이 날카롭게 서 있을 때 한해서

입니다. 누구를 상하게 하는 칼날이 아니라 버릇과 타성과 번뇌를 가차 없이 절하는 지혜의 칼날입니다. 자신을 붙들어 두고 근원적인 의문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안락함, 편안함, 타성, 즐거움을 거듭거듭 떨치고 새롭게 출가해야 합니다.

출가는 떠남이 아니라 돌아옵니다. 진정한 나에게로, 그동안 잊었던 본래의 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출가는 소음과 잡다한 얽힘에서 벗어나 침묵의 세계로 들어섭니다. 말이 안으로 여물도록 인내함으로써 우리 안의 질서를 찾습니다. 중심을 바로 세워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만 가려내는 그런 눈뜸입니다.

출가는 본래의 나를 찾아 나섭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존재 속의 존재에게 간절히 묻습니다. 답은 그 물음 속에 있습니다. 출가는 안정된 삶을 뛰어넘어 충만한 삶에 이르려는 것입니다. 안정과 편안

함은 타성의 늪입니다. 쉼 없는 탈출과 새로운 시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변화가 없이는 죽은 존재입니다.

출가는 문명의 도구들을 뒤로하고 자연으로 다가가입니다. 인위적인 문명의 감옥에서 나와, 인간이 기댈 유일한 품인 자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부처님은 숲 속에서 수행했고 숲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으며 숲 속에서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파괴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자연 안에서만 인간은 본래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출가는 스스로 단순하고 간소한 생활양식을 선택합니다. 가난은 수행자에게 겸손과 평안을 가져다주고 바른 정신을 지니게 합니다. 내가 가난해 봄으로써 이웃의 가난과 고난에 눈을 돌립니다. 출가자는 욕망에 따라 살지 않고 필요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는 안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출가는 경제 논리가 아니라 진리를 삶의 원리로 삼습니다. 출가는 세상에게 달라지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 길상사 가람에 대해서 - ①

글 • 홍정근

달라지겠다고 다짐합니다. 출가는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에 이르는 길입니다. 인간은 본디 자유로운 존재이며, 존재의 궁극적인 목표도 자유입니다. 물질, 온갖 관계, 심지어 자신이 따르는 종교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일입니다. 출가는 고통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더 많은 고통으로 인도하는 고통이고, 하나는 고통의 끝으로 인도하는 고통입니다. 모든 욕망과 인연으로부터의 떠남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생가지를 찢는 듯한 아픔이 뒤따릅니다. 출가를 꿈꾸는 자에게는 그 아픔은 숙명 과도 같습니 다. 하지만 이 큰 고통을 통해 모든 고통의 끝에 이르는 것이 출가입니다.

이 글은 2003년 10월 5일, 길상사 불교문화강좌에서 설법하셨던 내용입니다.

### 월간 맑고 향기롭게 원고 모집 안내

살아가면서 느끼는 소소한 감동,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 가족 이야기 등 소중한 경험들을 자유롭게 써서 보내주세요.

맑고 향기롭게 회원, 길상사 신도 그리고 독자 참여 지면을 늘여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원고는 수시로 접수합니다. 법인 사무국으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clean94@hanmail.net](mailto:clean94@hanmail.net)
- 원고를 보내주시실 때는 본인의 소개(약력, 이름, 연락처, 주소, 전하고 싶은 말씀)를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가 채택될 시 문화상품권(5만원)을 보내드립니다.

사람들이 절을 찾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려면 무엇보다 절이 절다워야 한다.

절은 부처님을 모시는 곳으로 불교의 진리인 법을 보존하여 가르치고 배우며, 불법(佛法)을 근본으로 하여 스님과 불자들이 수행할 때 '절답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절을 말할 때 '무슨 산 무슨 사'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조계산 송광사', '가야산 해인사'라고 하듯이, 산 이름을 먼저 부르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명은 시대에 따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바뀌는 경우가 많지만, 산 이름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행여 바뀐다 한들, 몇백 년에 한번쯤 바

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산은 변하지 않는 것이요, 절은 그 변하지 않음을 깊이 간직하려는 것이다.

길하고 상서로운 절! 길상사의 일주문 현판은 '三角山 吉祥寺(삼각산 길상사)'이다. 서울시 북쪽 외곽에 병풍을 친 듯이 솟아 있는 삼각산은 최고봉인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의 높은 세 봉우리가 뿔처럼 높이 서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리고 길상사 창건 시부터 지금까지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이라는 수식어가 함께 하고 있는데,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뀐다고 해도 요정정치의 중심지에서 청정한 절로 피어나고 자 했던 길상화 보살의 10년간의 간절

한 염원과 무소유의 정신을 현대인에게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으로 전파하려고 했던 법정 스님의 화두를 한결같이 지켜나가기 위함이다.

길상사 가람 안의 전각들은 녹음이 우거진 산사와는 달리, 회색 건물이 공존하고 있는 도심사찰로서 오방색이 현대인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고, 한옥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자 했던 법정 스님의 말씀에 따라 단청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가난한 절을 표방하였기에, 건물 불사보다 사람 불사에 더 중점을 두고자 했던 속뜻도 담겨있는 것이다. 길상사는 70년대 고급 요정이었던 대원각의 당시 건물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 사찰과는 다른 건물배치를 보이고 있다. 우리 꽃이 사시사철 피고 지는 도심 속 생태사찰이자 전국의 불자들과 시민들이 자주 찾는 수행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길상사의 가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일주문(一柱門)



사찰의 일주문은 보통 네 개의 기둥을 세우는 건물 양식과 달리 두 개의 기둥이 한 줄로 늘어져 있어서 일주문(一柱門)이라고 한다. 많은 사찰 건물 중 일주문의 기둥만이 한 줄로 늘어선 것은 세속의 번뇌로 산란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진리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상징적인 의미, 즉 일심(一心)의 의미가 있다. 사바세계에서 열반의 세계인 저 언덕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으로서 문 밖의 속계(俗界)에서 문 안의 진계(眞界)로 들어가는 통로인 것이다.

그런데 길상사의 일주문은 매우 높고 웅장하다. 대원각 시절 솟을 대문을 그대로 일주문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주문 입구 좌우에는 '神光不昧 萬古徽猷(신광불매 만고휘유), 入此門來 莫存知解(입차문래 막존지해)'라고 써져 있는 주련이 있다.

이 글은 남송 말에서 원초 시대에 살았던 고봉 선사(高峯 僧師)의 제자 중봉 명본 선사(中峰 明本 僧師)의 말씀으로, “신령스런 광명이 어둡지 않아 만고에 빛나니, 이 문에 들어오거든 알음알이를 두지 말라.”는 뜻이다. 여기서 신령스런 광명은 부처님의 지혜광명을 뜻한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어둡지 않아 삼세를 통해 밝게 빛나니, 이 절집의 문에 들어오려거든 맑고 청정한 마음으로 세속의 옳고 그름, 이해득실 등 온갖 알음알이를 버리고 빈 마음으로 들어오라는 말이다. (이 주련은 2013년 3월 제작하였다.)

지혜를 얻으려면 아상을 버리고 빈 마음으로 들어와야 함에도,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고 들어온다. 기도스님의 염불소리가 좋건 나쁘건, 법문이 좋건 나쁘건, 본인이 기도하고, 믿고 행하겠다는 빈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것을 제대로 평가를 하려 한다. 그래서 법정 스님은 일주문을 들어올때 반드시 차에서 내려 걸어서 들어오라고 하셨던 것이다. 절에 들어서는 그 순간이나마 속계와 진계를 구별할 줄 아는 알아차림이 필요하다.

개원 당시 일주문만 유일하게 궁궐 단청이 되어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 채색이 낡고 오래되어 2013년 6월 오불(五佛)을 그린 불교 단청으로 새롭게 조성하였다. 단청 불사 전에는 일주문 입구 천정에 봉황이 그려져 있었으나, 불사 후 수염으로 여의주를 낚아챈 청룡의 기세등등한 모습과 화가 난 황룡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현판은 추사 김정희 이후 최고 명필로 손꼽히며 행서와 예서에 능한

여초(如初) 김응현(1927~2007) 선생의 작품이며, 기와와 시멘트를 이용한 석조건축물로 목조의 다포양식을 흉내 낸 것이 1970~80년대 유행했던 한옥 건축의 양식임을 알 수 있는데, 2000년 일주문 기와 보수 불사를 하던 중, 1974년 상량하였다는 자료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길상사 전 사무장에게 전해들은 바 있으나, 자세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 극락전(極樂殿)

극락전은 길상사의 큰 법당으로 아미타부처님을 봉안한 전각이다. 아미타불은 대승불교, 특히 정토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모시는 주불(主佛)로, 무량광불, 무량수불이라고도 한다. 1997년 12월 길상사 개원 시 아미타불을 주존으로 모셨는데, 시주자인 길상화(김영한) 보살의 공덕을 기리고, 여인들의 한(恨)과 축생들의 극락왕생을 바라는 마음과 많은 불자들이 이고득락(離苦得樂)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봉안하였으며, 길상화 보살이 단독 시주하였다.

극락전 건물이 정확하게 언제 지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1970년 5월 6일 자 경향신문에 5월 4일 '대원각을 새롭게 단장하여 개업한다'는 광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1960년대 말 증축된 것으로 추정하며, 대원각 시절에는 금실과 은실로 본체(本體) 역할을 하였다.

극락전 법당에는 주존인 아미타불과 좌협시 관세음보살, 우협시 지장보살, 아미타불 탱화가 봉안되어 있는데, 아미타불은 2007년 5월과 2015년 5월 개금불사를 한 바 있다.



아미타불 탱화는 불모(佛母) 김의식 선생이 그렸다. 김의식 선생은 30

대 초반인 1990년 '제3회 대한민국 불교미술 대전에서 '대상'을, 1993년 '제18회 전승공예대전(불화)'에서는 '대통령상을 받은 불화장(佛畵匠)이다. 전통적인 탱화는 채색이 혼란스러운 감이 있으니 좀 담백하고 깔끔하게 조성할 수 없겠냐는 법정 스님의 제안에 따라 먹 바탕에 금니로 조성되었다. 2014년 12월 극락전 기둥과 대들보가 붕괴할 위험이 있어, 보수 공사를 통해 법당을 확장하였다. 2015년 2월 법당 내부공사를 마치고 그해 5월 극락전 아미타불 개금불사와 협시보살 중창 불사를 하면서 탱화가 협소하여 김의식 선생에게 기존의 형식을 깨지 않고 새롭게 조성해 줄 것을 의뢰하였으며, 기존 협시보살과 탱화는 옛 도서관(현 다라니 다원)으로 옮겨 모셨다.



불단 좌측에 봉안된 극락전 지장탱화는 중앙에 지장보살상을 배치하고 지장보살이 앉은 대좌 양옆으로 도명존자(道明尊者)와 무독귀왕(無毒鬼王)이 협시하고 있으며, 십대명왕, 동자 등이 둥글게 원을 그리듯 에워싸고 있는 '지장시왕도' 탱화이다.

불단 우측에는 신중탱화가 봉안되어 있으며, 신중탱화에 나오는 많은 호법신들은 우리나라 재래의 신들이 많다. 이는 재래 토속 신앙의 불교적 전개를 의미한다. 그리고 토속 신들이 호법선신(護法善神)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점에서 신중탱화는 그 어떠한 탱화보다도 고유의 특성이 강하다. (다음 호 계속)

## 10월 결연 대상자 - 김막순(가명)

###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막막하고 눈물만 나왔어요.

김막순(가명)님은 다급히 핸드폰을 들고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지만 전화를 받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음씨 좋은 일가친척과 지인들이었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횟수가 늘어나자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허하게 울리는 수화음 소리에 왈각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기야,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뇌 병변 1급으로 누워있어 소통도 되지 않는 남편만이 묵묵히 아내의 하소연을 들어줄 뿐입니다.

불행의 시작은 사랑하는 아들을 쉽게 떠나보내지 못한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내 몸보다 더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7살 되던 해에 백혈병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

지는 것 같았지만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병간호하고 수술도 했지만 둘째는 11살의 어린 나이로 부모님 곁을 떠나 하늘 나라로 갔습니다. 부부는 송곳으로 후빈 듯 상처 난 가슴이 아물기도 전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를 위해 일해야만 했습니다. 아픈 아이를 돌보면서 들러간 병원비에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를 보내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과로로 인한 신경성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기울어진 가세 때문에 치진 심신을 돌보지도 못하고 과도한 일로 몸을 혹사한 결과였습니다. 아내의 투정에도 싫은 소리 한번 없이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남편이었기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쓰러지고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편을 돌보는 건 김막순 님의 몫입니다.

남편이 쓰러진 후 집안 형편은 더욱 안 좋아졌고 지인들에게 의존하여 위기를 넘길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손을 내밀어줄 지인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 김막순 님에게 한 줄기 희망을...

건강문제로 인해 경제활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남편은 오른쪽 편마비로 거동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당뇨와 고혈압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막순 님 또한 남편을 병간호하면서 허리 협착증이 생겨 고통이 큰 상태입니다. 담당 의사는 수술을 권하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남편을 돌봐야 하기에 수술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은 수급비 110만 원(장애 수당포함)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무허가 주택 연간 사용료로 매월 30만 원(연체 부분 포함), 관리비 및 공과금 12만 원, 대출이자 10만 원, 교통비 10만 원이 있으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CT 촬영 등의 진료비 지출이 커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남편을 돌보며 가정을 꾸려나가는 김막순 님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매월 생계비 30만 원을 1년간 지원하고자 합니다. 열심히 가족을 돌보며 살아왔지만 개인이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막순 님에게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은 소식지 소개와 더불어 인터넷 다음 카카오톡 같이기차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마더 테레사

글 • 곽영미

1981년 5월 3일 오후 4시, 국제공항에는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신문기자와 카메라맨들도 가득 차 있었지요. 대통령이 오냐고요? 유명한 연예인이 외국에 갔다가 오는 것일까요?

잠시 후 플래시 불빛이 요란하게 터지면서 김수환 추기경과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나왔어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예요. 공항에 모인 사람들은 바로 테레사 수녀님을 보기 위해 모인 거랍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머문 서울 명동성당 안은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끊임없이 밀려들었지요. 수녀님은 밖으로 나가 가볍게 인사를 건넸

습니다. 사람들은 테레사 수녀님의 가벼운 인사말에도 기뻐하며 어쩔 줄 몰랐어요. 수녀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마지막이 물었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해 알고 있습니까? 나를 만나는 열정으로 그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순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아무도 당당히 “그렇습니다. 나는 언제나 가난한 이웃을 찾아다니며 돕고 있습니다.”하고 말할 수 없었어요.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랑에 굶주린 사람도 많습니니다. 그런 이웃들의 굶주림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벗겨지고 햇볕은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배고픔뿐만 아니라, 사랑에 굶주린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작은 사랑을 나누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햇볕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희생하셨듯, 여러분도 그 사랑을 실천하세요.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성스럽게 자라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일이 잘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곳에 온 사람들은 테레사 수녀님의 말에 큰 감동을 받으며 자신들이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손 모아 기도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인도의 성녀이자 전 세계의 자비로운 어머니라고 불리지요. 사랑의 선교회를 통해 고아, 병자,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헌신한 분

입니다.

사랑의 선교회는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선교회를 처음 시작한 곳은 인도예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대부분 힌두교를 믿어서 가톨릭교인 테레사 수녀님을 배척하는 이들이 꽤 있었어요. 사랑의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영생의 집’이 힌두교 사원에 자리를 잡자 힌두교 신자들은 마구 항의를 했어요.

“테레사 수녀가 힌두교인들을 모두 가톨릭교로 바꾸려고 한다. 테레사 수녀를 몰아내자!”

그때 한 사람이 나서서 테레사 수녀님을 몰아내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영생의 집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는 그곳에 가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있었거든요. 다른 수녀님들도 마찬가지로 아픈 상처를 보살피고 음식을 먹이며 잡기도 설 틈 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어리가 되어 묵묵히 그 모습을 바라보다 발길을 돌렸어요.

영생의 집을 다녀온 그 사람은 힌두교인들 앞에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테레사 수녀를 꼭 찾아내겠다고 다시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여러분이 약속을 해 주세요. 당신들의 어머니와 누이에게 지금 저 수녀들이 하는 일을 대신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럼 나도 테레사 수녀를 내쫓겠다고 약속하겠소. 나는 지금 영생의 집에서 살아 있는 여신을 보고 오는 길입니다.”

비단 테레사 수녀님뿐만 아니라, 사랑의 선교회에서 일하는 수녀님 모두가 자비로운 어머니들이랍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고 꺼리는 일을 자기 일처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의 선교회의 많은 수녀님과 자원봉사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답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노벨평화상을 받

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노벨평화상을 타게 된 것은 가난한 사람들 덕분입니다. 이 상 덕분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지요. 우리의 양심을 움직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우리의 형제이며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 미소를 보여주세요. 아주 잠시라도 좋습니다.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세요. 비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우산을 건네고, 눈먼 사람에게 책을 읽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길 건너편에, 당신의 옆집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그토록 단순한 일이 너무나 많아서 쉽게 잊어버리기도 한답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영생의 집 아이들이 설당을 못 먹는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먹을 설당을 모아 가지고 온 어

린 소년, 굶주리는 자신의 가족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 주는 여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테레사 수녀님이 너무 종교적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생의 집을 방문한 그 남자의 말처럼 테레사 수녀님처럼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테레사 수녀님은 가톨릭 종교인으로서 그 안에서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 • 1950년 인도 캘커타에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하고, 평생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봉사했다. 사랑의 선교회는 지금도 전 세계의 나병과 결핵, 에이즈 환자를 위한 요양원과 무료 급식소, 상담소, 고아원, 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후원

‘길이 열리는 만큼 물이 흐르듯 본 모임의 사업은 회원님께서 후원해 주시는 만큼 펼쳐집니다.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100% 회원님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원계좌 기부 : 국민은행 817-01-0253-129 (사)맑고 향기롭게

※ (사)맑고 향기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활동소식을 비롯하여 법정 스님의 글과 삶의 지혜가 담긴 일차고 유익한 월간'맑고 향기롭게'를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맑고 향기롭게 소식과 법정 스님 글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APP)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www.clear94.or.kr](http://www.clear94.or.kr))나 사무국으로 방문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후원해 주신 모든 기부자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내 말 좀 들어볼래요?

글 • 고현희(공감대화 개발원장)

친구가 힘든 일을 겪고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건 아무 것도 아니야, 나는 더한 일이 있었는데...’

‘그건 네게 좋은 경험이 될 거야. 거기서 좀 배워라.’

‘네 잘못이 아니네. 너는 최선을 다했잖아. 잊어버려.’

‘그 말을 들으니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네. 그게 뭐냐면...’

‘그만하고 잊어버려. 기운 내.’

‘참 안됐구나, 어찌면 좋으니...’

‘그런데 도대체 언제부터 그런 거야?’

‘그게 어떤 건지 내가 자세히 설명해줄게...’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해야 해...’

공감대화의 기본 법칙은 ‘상·느·바·부. (상황·느낌·바람·부탁)’입니다. 이 4가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느낌입니다. 느낌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대화와 소통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위의 말에는 느낌이 없습니다. 판단하고, 다른 이야기 꺼내고, 명령하고, 조언하고, 동정하고, 심문하고, 설명하는 말들입니다. 위에 적은 말들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들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첫 말은 느낌입니다. 느낌이 들어간 말은 아래와 같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구나.’**

‘네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돼서 속상하겠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답답하네.’

‘그 일로 좌절했겠다...’

‘네가 견뎌내기 힘든 일이었구나. 안타깝다.’

‘너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돼서 속상하겠다.’

공감의 말을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친구가 더 많은 말들을 털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맞추며, 다시 공감의 말을 해주십시오. 아주 긴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감을 충분히 해주고 친구가 말을 다 했다고 보이면 아래와 같이 질문형으로 말하세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내가 겪었던 그보다 더한 일이 생각나는데 들어볼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네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해도 될까?’**

‘그것을 네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도움이 될지 말해주고 싶은데 들어볼래?’

‘그게 어떤 건지 내가 다르게 설명해주고 싶어. 설명해볼까?’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나는 다르게 생각되는데... 내 생각이 궁금하니?’

이런 질문형의 말에 ‘응. 말해봐.’ ‘들어볼게.’ 라는 답을 들은 후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만약 ‘아니 말하지 마.’ ‘내 말이 더 남아있어.’ ‘오늘은 듣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 멈추어야 합니다. 방수복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물을 뿌린다면 물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에게 조언을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될까요? 상대가 ‘너는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으면 답을 하셔도 됩니다. 상대가 묻기 전에 조언하지 마십시오.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은 그 일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말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말을 들어주면 됩니다. 판단하고, 조언하고, 동정하지 마시고 공감하며 들어주기가 최선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거나, 다른 의견을 말해주고 싶다면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 말 좀 들어볼래?’라고 묻고 ‘그래.’ 라고 할 때가 알맞은 때입니다.

‘비폭력대화’의 저자 마셜 로젠버그는 ‘갈등의 세상에서 평화를 말하다’라는 책도 썼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당신이 하는 다음 말이 당신의 세상

을 바꾼다’입니다. 이 부제를 이렇게 바꾸어도 될까요? ‘당신이 하는 다음 말이 당신을 만든다.’ 당신이 하는 다음 말부터 공감대화를 생각하고 말하세요. 습관대로 명령하지 마시고 자력을 키울 수 있는 질문을 하세요. 비난하지 마시고 그 순간의 느낌을 말하세요. 부정적으로 몰아붙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바라는 것을 말하세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자신의 말, 행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요  
날 때부터 바라문이 되는 것도 아니요  
오로지 그 행위로 말미암아  
천한 사람도 되고 바라문도 되는 것이요.**

# Happy=Hygge

글 • 강인철(작가)

국민(초등)학교 때 세계에서 가장 가 보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고 물으면 늘 ‘덴마크’가 첫 번째였다. 그 나라가 어디 있고 얼마나 잘사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그리 알고 자랐다. 배고팠던 시절, 그들은 빵과 우유에 고기를 먹고 산다는 말이 그렇게 믿게 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그 나라도 가난했었는데 낙농업으로 성공하여 잘살게 됐다.”고 했다. 나도 어른이 되면 “젓소를 많이 키워 부자 될 거야.”하고 다부지게 맘먹어 봤던 어릴 적 기억이 어렴풋하다.

그런데 그 나라에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많고 여성들조차 정장보다 청바지 차림이 더 많았다. 고층 빌딩도 없어 부자로 보이지도 않았다. 그

림에도 하나같이 여유롭고 친절하고 미소 띠는 모습들이 나그네를 더욱 낯설게 했다.

중1 때 영어를 처음 배우면서 school, boy, home, happy를 외우며 happy가 행복이라는 단어임을 알고 행복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외우고 쓰기를 제일 많이 했었다. 그런데 정작 이곳에선 happy 대신 쓰고 있는 Hygge(후가)라는 말이 자꾸만 귀를 헛갈리게 한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다. 하긴 입국하면서 코, 펜, 하, 켄에 간다고 했을 때, 그 말(발음)을 알아들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들이 갖는 Hygge의 의미도 분



명히 '행복임엔 틀림이 없으나 '웰빙'의 뉘앙스에 더 가깝다는 걸 안 건 며칠 지나서였다. 그 후 더 깊은 내면에 '따뜻하다' '편안하다' '네가 있어 좋다' 등의 속뜻이 생활 속에 깊이 배어 있음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런 의식이 나라를 잘 살고 행복한 국가로 만든 국민적 양식이었다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꼭 젓소를 키워 낙농업을 발전시킨 것만으로 잘 살아 행복한 게 아님을 보고, 듣고, 실감하고 있다.

남을 헐뜯거나 거짓된 행동을 하면 그를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이들의 어린이 교육 일선에 'Hygge'라는 단어가 항상 앞장을 서고 있다니 부럽기 한량없는 일

이다. 과시, 가식, 과다경쟁 없는 사회적 유대감을 삶의 가치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이곳의 행복 바이러스를 배낭 가득 담고 싶다. 청바지의 자전거 물결이 서울의 자동차 홍수보다 낫다.

### 인어공주

'덴마크 하면 인어공주' 이는 문학의 힘이 어떤가를 웅변해 주고 있는 표상이기도 하다. 1913년에 탄생한 작품이니 벌써 100여 년 전 일이다. 그런데 인어공주 동상을 보겠다고 길을 쓰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유명세에 비해 크지도, 화려하지도, 눈길을 끌 만하지도 않은 실물에 저마다 "에게~게~"하는 눈치다.

코펜하겐 해변가에 아무런 장식도 없이 자연석 바윗덩이 위에 올라앉아 있는 동상의 높이가 1m도 안 됐으니 외형상 그럴 만도 하겠지만 그러나 문학을 통해 독자들의 내면에서 계속 거듭나고 있는 인어공주야

말로 국경과 언어의 벽을 넘어 열 배 백 배로 재탄생하고 있는 셈이다. 갑자기 작가가 어떤 곳에서 글을 썼을까 궁금했다. 가서 작품 세계로 폭 빠져 보고 싶었다.

도심 중앙역에서 프레데리시아 행 기차를 탔다. 한참을 달리는가 싶더니 열차가 통째로 배 속으로 들어가 바다를 건넌다. 2시간 후 내린 곳은 젓소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핀 섬 오펜세 마을, 안테르센의 고향이다. 제화공 집 아들로 태어난 어린 시절은 불우했지만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연극에도 자주 데려갔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안테르센은 문학에 남다른 관심과 재주를 발휘하여 오늘날 '동화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의 작품 속에 배어 있는 절절한 삶의 열정, 존엄 그리고 사랑은 가정 파탄의 고통을 내면에 깊이 새긴 결과 아니었나 싶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공감대를 통한

그의 진실한 리얼리즘은 그래서 더욱 돋보이고 있다. <인어공주> <성냥팔이 소녀> 그리고 자화상이라 일컫는 <미운 오리 새끼> 등을 보면 더욱 그렇다.

70세로 영면했을 땐 국장國葬으로 예우를 받았다. 한 작가의 위대한 생애가 극적으로 배어 있는 안테르센 박물관과 생가 그리고 구둑방 등이 예스러운 그대로다. 온 동네를 안테르센 공원으로 가꿔 놓은 동화의 나라에서 <백설 공주>도 만나보고, <별거벗은 임금님>과도 가슴으로 애기를 나눌 수 있었던 오펜세! 작가의 고향에서 작품을 몸으로 읽어 보다니, 꿈같은 행복이다.

### 하지 축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는 지구 북반구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하고 있어 시간과 경비 등 별도의 준비가 필요한 여행 코스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뱃길로 출발, 다음 날 스웨

## 뒷마당 가득 국화 잔치

글 • 권오분

텐의 스탁홀름에 닿았다.

노벨상을 시상하고 맘마미아로 유명한 아바의 나라의 첫인상이 세상에나 이게 웬일일까, 해수욕장도 아닌데 너도 나도 옷통을 벗고 거리를 활보하며 태양을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햇볕이 부족한 나라라고는 알고 왔지만 상상을 벗어난 진풍경이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남자들의 반바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성들의 비키니 차림에도 특별히 눈길을 주는 사람조차 없이 햇볕에 열광하고 있는 모습 앞에 갑자기 촌놈이 되고 말았다.

예상 밖의 일이라 얼떨떨했던 그때가 마침 일 년 중 해가 가장 긴 하지夏至절이라 지루한 겨울을 견뎌낸 이들이 햇볕에 굶주린 일조량을 보충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즐겨 온 '하지 축제'라고 귀띔한다.

아무리 백인종이라지만 이들의 속

살은 희다 못해 창백한 수준으로 피부가 너무 하얀 탓에 잘못하다간 삶아 낸 새우나 랍스터처럼 피부가 별경계 익을 것만 같아 오히려 안타까워 보였다. 이들에게 햇볕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떤 여성은 날이 개고 해가 뜨자 온몸에 해바라기씨 오일을 바르고 자기 집 지붕 위에 올라가 큰대大자로 드러누웠다는 사진까지 신문에 보도되었을까.

북반구의 나라들은 9월부터 긴 겨울이 시작되며 오전 9시에 뜬 해가 오후 2~3시에 지지만, 짧은 하절기엔 오전 2~3시에 뜬 해가 오후 10~11시까지 살아 있으니 “오~나의 태양”에 열광할 수밖에... 오늘이 마침 6월 21일 하지니까 3일 동안은 오히려 태양을 벗하며 긴 겨울을 대비해 풍성하고 뜨거운 기운을 마음껏 챙기고 있음을 이해하고도 남을 일이다.

**강인철** • 충남 금산에서 태어나 '에세이|2|' 기호호로 등단했고, 현재 문화유산국민신탁 홍보대사, 서울 시교육청 재능기부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부자 라이브 인 USA> (이름이 뭐잖아) 등이 있다.

산에 들에 피던 꽃들은 모두 끝물인데, 꽃집에는 여전히形形色색의 소국이 한 묶음에 2~3천 원이라는 가격표를 달고 있다. 산국 수확을 놓친 아쉬움과 서운함을 달래려고 소국을 있는 대로 사들였다. 이웃 사람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국화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짙레 덩굴을 잘라낸 자리에 국화 화분을 사다가 옮겨심기도 하고 절화를 사다가 바위 틈새에 꽂기도 해서 뒷마당을 국화 전시장처럼 꾸몄다.

꽃송이가 큰 대국은 상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얼마 되지 않았고, 소국도 뿌리째 화분에 심어진 것도 몇 종류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절화는 가짓수가 상당히 많아 모으면서

도 놀랐다. 덕분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40여 종류의 소국을 모을 수 있었다. 이렇게 모은 갖가지 빛깔의 소국을 여기저기에 닦치는 대로 꽂다 보니 산만한 듯도 했지만,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이 느껴졌기에 그냥 두기로 했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여기저기에서 국화 전시회가 열리지만 꽃집에 진열되어 있는 국화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대부분 꽃송이를 크게 만들거나 어떤 형상을 표현하느라 인위적으로 손을 대 자연스러운 맛이 사라진 탓에 화려해서 아름답기보다는 아쉬운 마음이 더 들기 때문이다.

국화는 향기도 일품이지만 그보다는 추위를 이겨내는 생명력이 국



화의 가치를 말해준다. 몇 차례 겨울 같은 가을 추위가 지나가고 다른 풀꽃들이 삶은 시금치 꽃이 되었는데도 국화만은 멀쩡하게 남아 가을의 스산함을 달래준다. 선조들이 국화를 오상고절(傲霜孤節)이라 하여 절개와 지조를 지키는 사람에 비유한 것만 보더라도 추위를 버티는 국화의 힘과 향기를 옛사람들도 칭송하며 사랑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몇 차례 사람들을 불러서 꽃잔치를 벌였다. 꽃잔치래야 뒷마당의 국화를 바라보면서 밥 먹고 웃고 떠들고 차를 마시는 일이지만 모두 여간 즐거워하는 게 아니어서 국화를 모으느라 수고한 일이 쓸데없는 짓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쉬운 것은 그들 아무도 국화의 색깔이나 생김새 그리고 향기가 조금씩 다를 줄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색의 다채로움, 국화의 다양함, 향기의 미묘한 차이... 그런 것들을 보여 주

고 싶었는데 왠지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넓은 창으로 꽃을 보면서 차를 마시고 수다를 떨 수 있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분위기 좋은 식당이나 찻집이야 흔하겠지만, 편하고 자유로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을 어디 쉽게 찾을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몇 시간의 완전한 자유를 사람들에게 선사하고 싶었는데 가을 국화 덕분에 그 소원을 이룬 셈이다.

여름부터 나는 고사리에 대한 강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참석하고 있다. 그곳에서도 국화 전시회가 있었고, 꽃들을 만날 기쁨에 공부하는 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을이 지나갔다. 아무리 개화 기간이 긴 국화이지만 영하의 추위는 이기지 못하나 보다. 그곳 직원들이 전시되었던 꽃들을 베어 버리느라 바쁘게 일하고 있었다. 봄부터 가꾸어서 꽃 피우느라 고생했을 텐데, 아깝고 안타

까운 마음에 버려진 꽃들을 한 아름 주워왔다.

“그걸 가져가 뭣 하시게요? 다 마른 것을...”

“아직도 예쁘잖아요. 제가 집에 국화를 모으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소국을 서른여덟 종이나 모아놨어요.”

“여기 있는 건 대부분 대국이고, 소국까지 더 하면 십종이 넘을 거예요.”

도대체 국화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될까? 자주색, 노란색 그리고 벽돌색 소국을 한 아름 안고 차에 오르니 국화 향기가 차 안에 가득했다. 산국 향기를 맡지 못해서 여간 아쉽지가 않았는데 그 마음을 조금은 달랠 수가 있었다.

여태껏 짙레나 칙당굴, 하늘타리의 꽃들만 자랑해왔는데 짙레는 가시덩굴이라 풀 뽑기가 어렵고, 칙당굴은 꽃향기도 좋고 꽃도 예쁘지만 너무

무성히 뻗어서 옆집까지 피해가 가고, 하늘타리는 온 지분을 덮고도 모자라 추녀 안까지 파고들고... 옛 어른들이 집안에 덩굴을 심지 말라던 이유를 이제야 깨달았다.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키우기도 쉽고 향기도 좋은 국화를 여러 종류 심어서 국화가 많이 피는 집으로 바뀔야겠다.

식구들 밥상 차릴 생각도 않고 저녁 내내 국화의 마른 부분을 따내고 가지를 손질해서 향아리에 꽂았다. 꽃잎들을 마루 가득 어질러 놓으니 나 혼자 가을을 누리는 것 같아서 흐뭇하고 부자가 된 기분마저 들었다. 버려진 꽃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기쁨이 더 컸다. 부자 되기가 이렇게 쉬운 것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

**권오분** • 동네에서 밥 퍼주는 아줌마로 소문난 권오분님은 과거 「맑고 향기롭게, 소식지에 오랫동안 글을 연재했으며,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글들을 주로 써왔다. <제비꽃 편지> <꽃으로 여는 세상> <아름다운 우리 숲 찾아가기> <공제> 등이 있다.

# 방서한

글 • 계용묵

바람이 사랑거리니 바깥보다는 방안이 한결 좋다. 밤의 방안은 더욱 마음에 든다. 등하燈下에 책상을 기대 앉으면 마음이 폭 가라앉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연히 사색케 한다. 등화가 친이라는 말이 있거니와 등화를 가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겨울 밤인 듯하다.

저녁을 마치고 일순—巡의 산책이 있는 다음, 등을 켜고 고요히 방안에 들어앉으면 내 마음은 항상 무엇에 그렇게 주렸는지 공허한 마음이 저도 모르게 그 무엇인가를 찾기에 바쁘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도 찾을 수 없던 그 마음이다. 찾아질 리 없다. 허나 그것을 못 찾는 마음은 우울하기 짝이 없다. 나는 이제 사십의 고개턱에

숨이 차게 되었으니 인생의 감상 시절은 지났다고 보아도 좋으려만 내 마음은 무엇을 찾기에 그리 늘, 우울한지.

언제나 나는 내 마음에서 그 무엇인가를 찾다 못 찾으면 그것을 서적에서 찾으려고 애를 쓴다. 그 어떠한 책 속에는 죽히 내 공허한 마음을 채워 줄 그러한 무엇이 들어 있을 듯한 싶은 것이다. 그래서 멍하니 앉아서 생각을 더듬다가는 벌떡 일어서 서가로 달려가는 버릇이 있다.

그러나 지금 단칸 셋방의 객사인 내 집엔 서가는커녕 책조차 비치한 것이 없다. 좋거나 나쁘거나 그저 얻을 수 있었던 몇 권의 책이 책상 위에 놓여 있을 따름, 마음을 끄는 책이라고는 단 한 권도 없다. 책, 지극히 책이 그림다.

고향의 내 서재로 마음은 달린다. 여섯 층으로 된, 천정을 찌르는 높다란 서가가 눈앞에 보인다. 거기에 빈틈없이 질서 있게 나란히 책들이 가득 꽂혀 있다. 하지만 그것도 팔아먹고 남은 나머지가. 그것들의 책에서도 구미를 느끼지 못한다.

나는 또, 장 속에 처박아 둔, 이삼의 빈 서가를 연상해 본다. 몹시 마음에 언짢다. 한 번씩 눈을 거쳐는 보았다고 해도 내 마음을 살찌워 준 것이 그것들이었다. 그것이 이제 궁여窮餘의 일계—計에서 담배 연기로 화해 버리고 빈 서가만 남았거니 하니 마음의 공허가 더욱 심절甚切하다. 어쩐지 그 빈 서가는 내 자신인 듯이도 싶게 내 마음이 공허함을 느끼듯 공허함을 느끼는 것 같은 것이 알뜰히 걸린다. 그 서가에 그득하던 천여의 부

수를 다시 채워 보지 못할까. 아득한 생각이다. 그 부수를 다시 채우기만 하면 그래도 그 속에는 내 마음의 공허도 채워질 그러한 부분이 있을 듯만 싶은데 이제 그것을 임의로 할 수 있을 여유에 생각조차 미치지 못하니 내 자신은 이제 아무렇게나 장 속에 던져 둔, 서가와도 같은 생각이 들며 서글프기 짝이 없다.

그리하여 영원히 채울 길이 없는 그 서가와 같이 내 마음 속에도 티끌과 거미줄만이 쌓이고 구슬리는 가운데 나날이 남아 빠지는 것만 같다.

밤마다 고요히 등하에 앉기만 하면 나는 마음의 공허를, 이렇게 느끼고, 마음의 구석구석 들어치는 티끌 속에 케케묵어 가는 나라는 인간의 존재를 내다보고는 어이없이 웃어 본다.

〈문장〉, 1948년 12월

\* 출처: 모단 에세이 / 방민호 역

## 계용묵(1904~1961) 소설가

본명은 하태용, 평안북도 선천 출생으로 1928년 일본 도쿄대학 동양학과에서 수학했다. 단편소설 〈백치 아다다〉가 널리 알려져 있으며 해방 후 정비석과 함께 잡지 〈대조〉를 창간했다. 대표적인 단편소설은 〈백치 아다다〉 외에 〈별을 헨다〉(청춘도) 등이 있고 수필집으로 〈상아탑〉 등이 있다.

# 이것이 무슨 바구니인가?

어떤 스승이 바구니 안에 꽃을 담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바구니인가?”

제자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꽃바구니입니다.”

이번엔 꽃을 들어내고 쓰레기를 바구니에 담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바구니인가?”

제자들은 모두가 한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이 마흔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태어났을 때는 모두가 천사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세월이 갈수록 어떤 내면을 가지고 살아왔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거울 속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내면의 바구니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 출처: 따뜻한 하루

“스승님, 그건 쓰레기 바구니입니다.”

스승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를 말처럼 바구니에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너희들도 이 바구니처럼 내면에 향기로운 꽃을 담아 놓으면 향기 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 2018년 숲기행 맑고 향기로운 암자를 찾아서

### 1. 숲기행 일정

- 일자: 10월 27일(토)
- 장소: 속리산 법주사 산내암자
- 숲 특성: 정조 11년 조성한 순조대왕 태실과 태실 원찰 법주사와 산내암자들 그리고 숲을 지키고 가꾼 스님들의 이야기
- 회원 신도, 봉사자: 10월 1일부터 접수
- 비회원, 일반: 10월 8일부터 접수

- 회원 및 신도: 30,000원 / 일반인: 40,000원
- 입금처: KEB하나은행 257-890001-69804 / 예금주: 맑고 향기롭게
- 참가비 환불 원칙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2. 탑승지

- 길상사 일주문: 오전 6시 10분 / 한성대역 5번 출구: 오전 6시 20분 / 양재역 2번 출구: 오전 7시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세요)

### 4. 할인 안내

- 전년도 3만 원 이상 후원 회원에 한하여 할인 가능하며 신규 회원은 후원금 납부하여 3개월 후 참여 가능
- 길상사 신도(신도증 소지자 등)
- 가족 참석은 직계 가족 인원으로 한함

### 3. 참가비

### 5. 접수방법

- 전화 및 방문 접수(02-741-4696)

## 2018년 봉사자 숲기행 불일암 채마밭에서 범정 스님의 ‘무소유와 맑고 향기롭게 정신’을 되새기며

### 1. 숲기행 일정

- 일자: 10월 15일(월)
- 장소: 전라남도 순천 송광사, 불일암

- 취지: 범정 스님의 출가 본찰인 송광사와 무소유를 집필하셨던 불일암에서 암주 아신 덕조 스님과 함께 범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과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의 취지를 되새겨 봅시다.

- 봉사자 숲기행으로 현재 본회 봉사활동에 참여중인 분만 접수 가능
- 9월 17일(월)부터 각 봉사팀 담당자에게 접수

## 2. 탑승지

- 길상사 일주문: 오전 6시 10분 / 한성대역

## 반찬 나눔 대상자들에게 추석 선물 전달

(사)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대상자들이 외롭지 않게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도록 27가지 반찬과 더불어 추석 선물세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추석에도 끼니를 거르지 않고 넉넉히 드실 수 있도록 과일·생선 통조림, 햄, 김, 육개장, 호박죽을 전달하였습니다.

## 작은 녹색나눔장터 진행

9월 10일 초하루를 맞이하여 길상사 경내에서 작은 녹색나눔장터를 진행하였습니다. (사)맑고 향기롭게는 길상사 생태 사찰가꾸기 운동과 더불어 의류리폼활동과 천연화장품 강좌를 진행하여 자연 보호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각 활동을 통해 일회용품과 화학원료 사용을 줄이고, 리폼과 천연 섬유 및 원료로 제작된 물품은 맑고 향기로운 가게와 녹색나눔장터를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5번 출구 : 오전 6시 20분 / 양재역 2번 출구: 오전 7시(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세요)

## 3. 참가비

- 2만원(현재 활동 중인 봉사자 우선 접수/점심식사 제공)
- 입금처 : KEB하나은행 257-890001-69804 / 예금주 : 맑고 향기롭게

에서 매월 초하루 및 경내 행사에서 작은 녹색나눔장터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대불련 봉사단 '다운, 맑고 향기롭게 봉사활동 참여 시작

대불련 봉사단 '다운'은 지난 8월 27일(금)에 반찬 나눔 활동을 시작으로 맑고 향기롭게 봉사 활동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운'은 4~5명의 대학생 팀을 구성하여 길상사 생태사찰 가꾸기 활동(매주 둘째 주 토요일)으로 생명의 소중함과 환경 보호를 알리고, 반찬 나눔 봉사활동(매달 셋째 주, 넷째 주 금요일)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도움으로써 자비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합니다.

## 대학생 봉사활동 지원 사업 '나누는 기쁨' 경희대 주거환경개선 동아리 <미라클 팀> 봉사활동 진행

9월 8일, 경희대학교 주거환경개선 동아리 미라클이 「맑고 향기롭게」 봉사활동 지원 사업에 당선된 후 첫 번째 희망의 집고치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집고치기 봉사에서는 벽지도배를 주로 하고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집수리를 도와드립니다. 대학생 동아리에서 벽지와 장판을 구입하는데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맑고 향기롭게」의 지원으로 걱정 없이 봉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아리원들이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여 곰팡이가 핀 벽지 상태를 확인하고, 벽지 재단, 도배를 만들기, 벽지 붙이기, 장판 깔기 등 모든 과정을 직접 시공했습니다. 봉사가 다 끝난 후 깨끗해진 집에서 화사하게 웃으시는 어르신들의 모습과 보람을 느끼는 대학생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학생들이 지속적인 봉사를 통해 맑고 향기로운 정신을 익히고 세상에 전파할 수 있도록 「맑고 향기롭게」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 맑고 향기롭게 정기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사)맑고 향기롭게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 500여 가정에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반찬 27지를 나누고 3월에서 11월 둘째 목요일에는 배추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로 농협상품권

과 명절에는 생필품을 나누고 연말에는 김장 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 \*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매월 둘째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이동합니다.

### \*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활동

서울 종로구 안국역 옆에 위치한 어르신 이용 시설 서울노인복지센터가 10월 15일부터 연말까지 내부 공사로 인해 운영을 중단합니다. 당분간 봉사활동이 중지되오니 이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날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아름다운 만남 - 청소년 자원활동

'아름다운 만남' 자원활동은 노인 자살예방 캠페인 '아름다운 마무리'의 연장선상으로, 본 모임에서 밀반찬이나 전화 말벗 등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집을 청소년 봉사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정서적 지지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관심 있는 청소년 봉사자를 수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 \* 의류 리폼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맑고 향기롭게 의류리폼 자원활동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길상사 경내에 개점한 '맑고 향기로운 가게'를 통해 판매하고, 수익금은 세상 사업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길상사내 세계일화실에서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의류리폼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CMS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 일시 후원

뜻 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

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본모임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 중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세요.

###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10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4일(목/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매주 목, 금요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김치 나눔 자원활동 : 3월~11월 둘째 목요일(11일)/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물어도 괜찮은 옷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만발식당 내부 공사 관계로 잠정 중단

- 진인 노인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 자원활동 : 둘째 토요일(13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아름다운 만남(청소년과 독거어르신과의 만남) : 셋째, 넷째 토요일(20, 27일)

수요일/오후 1시 30분/세계일화실

#### <정기 재정 후원>

- 시각장애인 호송 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월곡 청소년 센터' 위탁운영 및 물품 후원
- 서울 지방 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극빈 어르신 정기 물품 지원
- 자혜원(아동 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매주 화요일/오후 12시/세계일화실
-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 짝수 달 매주

#### 후원계좌안내 (CMS, 계좌입금)

- '길이 열리는 만큼 물이 흐르듯 본 모임의 사업은 100% 회원님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사)맑고 향기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활동소식을 비롯하여 법정 스님의 글과 삶의 지혜가 담긴 알차고 유익한 월간 '맑고 향기롭게'를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 일반사업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KEB하나은행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 장학금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 결식이웃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02.741-4696 / 홈페이지 : www.clean94.or.kr

• 이메일 : clean94@hanmail.net • 주소 : 서울 성북구 선잠로5길 68 길상사내





###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 2층은 회원모임 공간과 사무실로 3층은 법정스님 자료와 도서, 대중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3층공간은 대관으로 공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홀로 어르신 말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 / 음식조리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활동(19시~21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봉사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앞9시출발/목욕,식사도움,빨래장리,말벗
- 청도 운문사 봉사 : 매월 둘째 주 금요일 9시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 공양 준비 및 공양 재료 다듬기, 청소 등
- 햇살청소년지원사업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청소년 물품 및 문화정서 지원 / 분기별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과정과 함께 명상 및 문화기행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조리봉사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 맑고향기롭게(소식지)발송 : 매월 초
- \* 사육 관리 및 청소 : 월중 수시
-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배달봉사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몸살림 기공체조 강좌 수강생 모집

대구모임에서는 기와 혈이 통하는 기공체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현재 매주 월, 수, 목 저녁 8시 대구모임 사육 3층 서로배움터에서 태극권, 형의권, 팔괘장 정통계승 및 기공활법 활기공 전수자이며 현재 대체의학 테라피를 진행하고 있는 백무현 선생님을 모셔서, 매주 월, 수, 목 오후 8시에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1시간 내외로 진행되며, 수강료는 대구모임 회원에 한하여 50% 할인하여 월 6만원입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 장소: 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 사무국 (대구 남구 봉덕로9길 84-2 2층) / 문의: 053-753-8883



### 대구모임 (053-753-8883)

## 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 서로 배움터 '맑고 향기로운 일곱 빛깔 아카데미 강좌' 안내 매월 둘째주 금요일 7시

- 10월 12일(금) / 서효정(메디시티 대구 의료서비스 디자인 연구원) '스타일 UP을 위한 이미지 개선 법'
- 11월 9일(금) / 허윤미(한국웃음다이어트협회 교육이사) '100세 건강시대로 가는 웃음 건강법'
- 12월 14일(금) / MC달래(전문 사회자, 푸른방송 케이블TV 리포터) '엄마가 즐거우면 아이들도 행복하다.'
- 장소: 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대구 남구 봉덕로9길 84-2 3층) / 문의: 053-753-8883

### 법정스님 책임기모임 '일기일회' 함께해요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8시에 회원들이 함께 모여, 법정스님의 저서 읽기 모임인 '일기일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정스님의 말씀과 지혜를 책에서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함께 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 1시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위안부 할머니 지원활동**: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지원활동
- **선 수련 모임**: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 열린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 / 사무국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운영/오전 9시30분~오후 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 / 매월 둘째 수요일 / 사무국
- **노래모임**: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 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천연 세숫비누, 빨래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 금강경 독송 천일기도

- 일시 : 매일 오후 2시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 5만원 /각 회차(100일)
- 설판도 받고 있으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관음재일

- 일시 : 10월 3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접수사 축원이 있습니다.

### 천수다라니 33독 기도

- 일시 : 10월 6일(토) 오후 6시 ~ 8시30분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초하루기도 및 법회

- 일시 : 10월 9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10월 13일(토) 오후 8시 00분 ~ 10월 14일(일) 새벽 3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종교연합바자회

- 일시 : 10월 13일(토)
- 장소 : 성북로 (성북동 주민센터 ~ 신한은행)

### 중앙절

- 일시 : 10월 17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 수능 기도자를 위한 성지순례

- 일시 : 10월 19일(금) 9시 출발 ~ 10월 20일(토) 오후 서울 도착
- 장소 : 여수 향일암
- 동참금 : 4만원

### 보름기도

- 일시 : 10월 23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지장재일

- 일시 : 10월 26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 10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관음재일	10월 3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다라니 기도	10월 6일	오후 6시 ~ 8시 30분	극락전
초하루 법회	10월 9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10월 13일	저녁 8시 ~ 새벽3시 50분	극락전
중양절	10월 17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보름기도	10월 23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10월 26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저녁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오전 9시 50분/저녁 7시	지장전
입사기도	매 일	오후 2시	극락전
금강경독송 천일기도	매 일	오후 2시	극락전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설법전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중고등 법회실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 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활동' 함께해요!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에서는 고령층 어르신과 장애인 등 500여 가구에 매주 반찬과 김치를 나누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모임이 1999년 IMF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외톨이가 된 노인들과 장애인을 찾아 반찬과 김장을 담아 전해 드린 것이 시작이 되어 어느덧 2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맑고 향기롭게와 뜻을 함께 하고,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책임감으로 참여하는 봉사자가 계시기에 지금도 나눔사업을 지속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면서, 맑고 향기롭게 봉사자도 점점 고령화 되어가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듯, 할 일이 많고, 도움을 드려야 할 대상자가 많기에, 나눔을 실천할 봉사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 활동 내용

- 무의탁노인, 결식아동, 극빈 장애인 및 저소득 가구 지원
- 밑반찬 2가지 조리후 각 동사무소로 전달
- 반기별 생필품 구입용 농협쿠폰 지원
- 매월 둘째 목요일에는 김치 전달
- 설날, 추석, 대보름, 부처님오신날에는 물품후원
- 연말 김장(각 가구에 15kg) 나눔

### • 참여 안내

- 장소 : 길상사 주차장 입구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시간 : 매주 목, 금요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2시
- 문의 : 맑고 향기롭게 중앙사무국 02)741-4696

#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길이 열리는 만큼 물이 흐르듯 본 모임의 사업은  
100% 회원님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는 사업에 뜻을 함께 해주세요.

## 정기후원/ 편리한 CMS 자동이체 신청하기

<b>정기 후원 회원 가입</b>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접속 가입서 작성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 방문 가입서 작성 <a href="http://www.clean94.or.kr">www.clean94.or.kr</a>
--------------------	---

## 온라인 후원

<b>중앙모임</b> 02-741-4696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반사업 후원계좌 국민 817-01-0253-129 KEB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li><li>• 결식이웃 후원계좌 국민 817-01-0255-458</li><li>•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 100-013-787953</li><li>• 장학금 후원계좌 KEB하나 220-890015-10204</li></ul>
<b>대구모임</b> 053-753-8883	대구 002-05-016277-8
<b>광주모임</b> 062-236-3129	농협 355-0018-7812-13
<b>경남모임</b> 055-266-0170	농협 932-01-002933

\*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직접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경우에는 (사)맑고 향기롭게 지부 사무국으로 전화주셔서  
회원등록 절차를 진행해주셔야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